

에코의 기호학적 주체 연구*

김운찬

1. 기호학과 주체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1932~)의 전체 기호학 이론에 있어 기호학적 주체의 문제는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1975년에 나온 그의 대표적인 이론서 『일반 기호학 논고』(이하 『논고』로 줄임)에서 '기호학의 주체'에 관한 고찰은 마지막 제4장을 장식하고 있으나 그 분량은 고작 다섯 쪽에 불과하다. 제2장 '코드 이론'이 130쪽, 제3장 '기호 생산 이론'이 172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불균형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불과 다섯 쪽에 지나지 않지만 도입부를 제외한 전체 네 개의 장 중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코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그의 이론의 전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아울러 기호학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암시하고 있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99-041-A00356 A6300)

에코가 기호학의 주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은 것은 그의 전반적인 이론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해석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이론은 삶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하는 인간 주체의 문제보다는, 기호 자체의 메커니즘 및 그 작동 방식에 대한 탐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레마스의 이론이 텍스트의 ‘의미의 생성 경로’를 치밀하게 추적하는 것과는 달리, 에코는 텍스트의 해석 과정과 그 논리의 모델을 세우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기호학은 무엇보다도 모든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소위 ‘제국주의적’ 학문이다. 기호학의 입장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모든 문화 현상은 그 자체로서 고유의 기호를 형성하며, 또한 기호들을 통하여 생산되고 유통·소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화는 기호학적 측면 하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1975: 43)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말해 “문화의 논리를 위하여” 씌어진 그의 『논고』는 다양하고 수많은 문화 기호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흐름들에 일관성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호학적 ‘논리’를 찾고자 한다. 그의 전체 작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은 바로 해석의 논리와 그 메커니즘을 탐색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그레마스의 작업과 대칭을 이루거나 또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해석이란 텍스트, 즉 어떤 “표현을 내용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역으로 내용의 계획이 표현으로 바뀌는 생성 단계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979: 68).

당연한 결과이지만 해석의 이론은 이미 ‘표현된’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고유의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호 체계들을 활용하는 인간 주체가 나름대로의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두 축이 발신자와 수신자라고 한다면, 해석이란 거의 전적으로 수신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

코의 이론적 성찰의 결실로서 1979년에 나온 『이야기 속의 독자』를 비롯하여 『해석의 한계』(1990), 『해석과 과잉 해석』(1992), 『허구의 숲으로 가는 여섯 번의 산책』(1994) 등은 모두 어느 주어진 텍스트가 수신자에 의해 고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분명 에코의 해석 이론은 작가의 입장보다는 독자의 편에 서 있다.

그렇다고 텍스트의 해석 이론이 발신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 그레마스를 비롯한 여러 이론들은 텍스트의 생산자, 그러니까 기호 사용의 구체적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 주체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텍스트와 그 발신자 사이의 긴밀한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서 있는 두 주체를 서로 분리하여 고찰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에코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비교적 최근에 나온 두툽한 이론서 『칸트와 오리너구리』(1997)에서는 구체적인 인간 주체에 의한 인지 및 인식의 과정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가령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가 살아 있는 코뿔소를 직접 보고 난 다음 당시의 유럽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다분히 환상적인 상상력과 함께) 외뿔 짐승 유니콘의 이미지 사이에서 느꼈을 법한 인식의 혼란, 또는 기존의 동물 분류법을 뒤흔드는 오리너구리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 어린아이가 주변의 사물들을 인지하고 분류하는 방식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인간 주체에게 있어 인지 및 인식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어떻게 다시 기호들로 재현되는가 밝히고자 시도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 역시 사물 기호들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의 차원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해석의 논리로 환원될 수 있는 관점에서 있다는 느낌이다. 어쨌든 에코의 후기 작업들에서는 기호 체계들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포함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2. 주체의 유령

소쉬르의 표현대로 기호학이 “사회 생활의 범위 안에서의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그 기호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기호 체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개별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주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쉬르가 기호학을 ‘사회 심리학,’ 더 나아가 ‘일반 심리학’의 일부로 보는 것도 아마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언어를 비롯한 모든 기호 체계는 그 사용자 주체인 인간과의 끊임없는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 안에서 작동되고 그 ‘유기체적인’ 삶을 유지한다. 직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이론에 있어 ‘구체적인 주체’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입장에서 접근하든 기호학은 주체의 문제를 간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에코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논고』 중에서 ‘기호 생산 이론’은 직접적으로 기호를 활용하는 주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도 분명 “기호 생산 작업은 사회적 비판의 형식,” 그러니까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들이 행하는 “실천 형식들 중의 하나”를 이룬다(1975: 375).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기호학의 명백한 목적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략적” “자연적” 그리고 “인식론적” 경계선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비롯듯이 어슴푸레 나타나는 주체라는 “유령”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코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세미오시스¹⁾의 실천 ‘행위자

1) semiosis. 일부에서는 ‘기호 작용’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용어의 함축적인 다양한 의미들을 충분히 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기호 자체의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동시키는 인간 주체들의 작용까지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의 정의에 따르면(Greimas, Courtés 1979: tr. it. 313~14), 세미오시스는 1) 표현과 내용, 또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상호 전제 관계 하에서 기호들을 생산하는 작업,

attore' 로서의 인간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ibid., 원문의 강조임).

그러나 에코는 최소한 현 단계의 기호학에서 다루어야 할 주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호학을 '세미오시스의 창조' 활동에 대한 연구로 간주하는 많은 기호학적 연구들이 이러한 문턱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테바의 주장처럼 "말하는 주체의 기호학"으로 고유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것은 기호학이 아니라 자칫하면 "유물론에 토대를 둔 해석학ermeneutica"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ibid., 375~76). 그리하여 에코는 자신이 제안하는 일반 기호학의 방법론을 위해서는 주체의 유령을 명백하게 가시적인 형태로 확정하고자 한다.

I. 기호학적 주체의 범위

문제는 기호학 이론이 다룰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체라는 개념은 철학·논리학·언어학·심리학, 심지어는 물리학이나 생리학·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제각기 상이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든, 특히 학제 간 interdisciplinaire 성격이 강한 기호학 연구에 있어서는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그레마스의 지적대로 주체라는 용어는 분명 무척이나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개념이다(Greimas, Courtés 1979: tr. it. 337a). 이러한 용어 자체의 모호성은 우리말로 옮길 경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어의 subject(이탈리아어 soggetto)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 '주체' (또는 '실체'), '주제' (또는 '화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기호학적 논의들에서 주체라는 용어는 종종 문장의 '주어' 개념

그러니까 "모든 언어 활동 행위"에 내포된 작업을 의미하며, 동시에 2) 표현과 내용의 두 함으로 이루어지는 "의소sème 범주"를 가리킬 수도 있다. 필자는 다른 글(1998)에서 "기호능(記號能)"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오해와 혼란의 여지가 많아 그냥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에서 발전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레마스의 '서사 문법'에서는 서사적 시퀀스의 행위 주체를 가리키고 따라서 '행위소attante' 개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그 함축적인 의미들은 상이한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개념 정의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뚜렷한 한계의 설정 없이 사용될 경우 의미상의 혼란과 함께 종종 기호학 연구의 기본 토대를 뒤흔들기도 한다.

각 분야별 주체의 정의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는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대략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 존재,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의' 주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통적 철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형성된 관점이다. 반면 이와는 달리 주체는 타자와 형성되는 관계들의 그물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적으로 표현된 매개물들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 또는 기능으로서 주체를 정의하는 이 후자의 관점에 따르자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의 정의는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된 입장 사이에서 에코는 (최소한 『논고』의 단계에서는) 기호학의 범위 안에서는 심리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주체를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논고』에서 제시된 일반 기호학의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에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명백히 제시한다.

1) 표현 행위의 주체는 (그는 발화체의 '문법적' 주체[주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발화 행위의 주체와 발화체의 주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메시지 또는 텍스트의 가능한 지시물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는 메시지에 의해 가능한 지시 대상물들 중의 하나를 이루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물리적 및 심리적

대상물들에 대해 다루는 학문들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

2) 발화 행위의 주체는, 자신의 모든 특성 및 성향들과 함께, 발화체에 의해 '전제' 되기 때문에, 그는 '운반된 내용의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읽혀지거나' 해석되어야 한다. 기호학적 담론 안에 발화의 주체를 도입하려는 다른 모든 시도는 기호학을 그 '자연적' 경계선들 중의 하나를 넘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1975: 375~76, 원문의 강조임)

여기에서 에코의 기본적 전제는 발화enunciazione의 주체와, 그 발화 행위의 산물로서 생산된 발화체enunciato의 주체 사이의 명백한 구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기호학의 주체를 오로지 발화체에 의해서만 재구성될 수 있는 주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실질적인 주체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그가 기호학의 주체를 “메시지 또는 텍스트의 가능한 지시물들 중의 하나”로만 간주하려는 것은, 기호학이 문화의 논리를 탐색하는 과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가정”인 것이다(*ibid.*, 378). 이것은 그 동안 언어학과 기호학 분야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뚜렷한 구별 없이 모호하게 사용됨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발화 대 발화체’를 둘러싼 논의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기호학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들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II. 주체성의 발현 공간으로서의 언어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체의 모습이 발화체를 통해서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에코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체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심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에 의해 이미 강조된 사실이었다. 벤베니스트에 따르면 “인간이 ‘주체’로서 구

성되는 것은 언어 속에서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이다”(1966: 259). 문법 용어로 표현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는 ‘주어’로서 나타나며,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타자에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구체적 모습인 주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생산하는 담론 속에서이다. 주체와 언어, 그리고 담론을 통한 주체성의 실현 과정에 대해 벤베니스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언어는 주체성의 표현에 적합한 언어 형식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관성의 가능성이고, 담론은 불연속적인 현실태 instance들로 성립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관성의 노출을 유발한다. 언어는 이를테면 ‘비어 있는’ 형식들을 제공하는데, 담론을 수행하는 각 화자가 이것들을 자기의 것을 삼아, 자기 자신을 je로, 또한 동시에 상대방을 tu로 규정하면서 이 형식들을 자신의 ‘인칭’에 관련시킨다. 담론의 현실태는 이와 같이 주체를 규정하는 모든 좌표를 구성한다. (*ibid.*, 263)

벤베니스트의 논의는 소쉬르에 의한 랑그와 파롤의 구분에 아주 적절하게 상응하고 있다. 언어의 ‘비어 있는’ 형식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 랑그를 파롤로 전환시키는 것이 발화 행위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발화 행위는 랑그와 파롤 사이에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이자, 동시에 담론의 수행을 통하여 고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방식이 된다. 그렇지만 벤베니스트는 담론을 통하여 발현되는 주체성은, 현상학에서 설정하든 또는 심리학에서 설정하든 상관없이 “언어의 근본적인 한 특성의 존재 속으로의 출현에 불과하다”(*ibid.*, 260)고 명백히 지적한다. 언어는 주체성의 발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만, 그 대가로 주체는 자신의 담론을 통해 제시된 모습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라캉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미화의 연쇄 구조는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다시 말해 주체가 다른 주체와 공유하는 언어 체계 속에 있는 한, 자신의 말 속에서 주체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는 주체의 사상(대개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 이상이다. 의미작용은 주체의 의도나 진리에 의존하기는커녕 오히려 언어 체계 내에서 주체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한다.²⁾

심리학자로서 라캉은 틀림없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체의 담론 속에서 그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에서 라캉은 메시지의 의미와 그 발신자의 의도 사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주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언어가 자신의 체계 내에서 주체의 위치를 설정해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주체의 모습은 언어를 비롯하여 그가 사용하는 기호 체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주체의 의도’가 그의 담론에 의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발화 행위가 주체에게는 일종의 심리학적 이중 분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는’ 주체와 ‘말해지는’ 주체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실질적인 발화의 주체가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생산한 발화체에 의해 실현되는(또는 에코의 주장에 따르자면 ‘해석되는’) 주체가 있을 수 있다.

주체의 의도와, 그가 하는 말의 의미(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사이에 빗어지는 갈등은 발화와 주체에 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에 의해 공식화된 도식(S/s)은 바로 이러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괴리 및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레마스(1970: tr. it. 13)가 지적하였듯

2) Lacan, “L’instance de la lettre dans l’Inconscient ou la raison depuis Freud”(우리말 번역판, 『욕망 이론』, 권택영 역음,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문예출판사, 1994, p. 65).

이,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오해들의 연속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에코가 말하는 세 가지 의도의 구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1990: 22~25). 즉 텍스트를 중심으로 “작가(발신자)의 의도” “작품의 의도” “독자(수신자)의 의도”를 각기 달리 구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의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서로 어긋나고 상충하기도 한다. 이렇듯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신자 주체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주체의 존재론적 위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그는 자신의 심층적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좌절된 표현에 의해 왜곡되고 비틀린 주체성 이외에는 실현할 수 없다.

III. 발화와 발화체

벤베니스트에 의한 발화의 이론은 인칭대명사를 비롯한 언어학적 범주들의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지 언어학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기호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논거들을 제시해준다. 가령 문학에 있어 ‘서사의 목소리’ 그리고 관점(또는 시점)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모두 발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서사 기법과 있어서도 여러 번 겹쳐진 또는 복합적인 ‘액자소설’ 들은 교묘하게 발화 행위의 실질적 주체를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데 기여하며, 때로는 독자로 하여금 허구적인 이야기를 진실로 착각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문학 이외에도 발화에 대한 성찰은 다양한 ‘특수 기호학’ 또는 ‘응용 기호학’³⁾ 분야의 연구들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

3) 에코는 ‘일반 기호학’과 ‘특수 기호학’을 구별하고 있는데, 특수 기호학은 “특정한 기호 체계의 문법”으로서 가령 “미국 농인들의 몸짓 언어의 문법, 영어 문법 또는 교통 표지판들의 문법” 등과 같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불확정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응용 기호학’은 기호학적 방법론에 의한 문학비평과 같은 “기술(記述) 및 해석적 실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1984: xi~xii). 그렇다면 동일한 분야에서 특수 기호학과 응용 기호학이 각기 서로 다른 방법론에 의한 연구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에코의 구별은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구체적 분석들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다. 가령 영화·연극·그림 등 여러 예술 분야뿐 아니라, 신문과 TV 등의 대중 매체 그리고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걸쳐 흥미로운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발화체는 발화 행위를 전제로 한다. 발화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든 또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든 상관없다. ‘나’ 또는 ‘지금’ ‘여기’ 처럼 주체를 가리키는 직시적 deittico 표지들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시점의 3인칭 소설을 비롯하여 작가의 개입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에서도 발화 행위의 주체를 추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령 유행가를 부르거나 널리 알려진 옛날이야기를 커다란 변화 없이 들려줄 때처럼 누가 실질적인 발화자인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화 행위와 발화체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우선 실제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밝히는 데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단테와 『신곡』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소한 서너 개의 상이한 단테의 모습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단테, 『신곡』의 ‘경험적 작가’로서의 단테,⁴⁾ 『신곡』의 이야기의 1인칭 화자 narratore,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여행한 자신의 경험담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단테 등이 있다. 이 여러 개의 모습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물론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고 따라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서로 달리 상정하는 것이 편리

4) 『이야기 속의 독자』(1979)를 비롯한 에코의 해석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존재인 ‘경험적 작가’ 이외에 독자에 의해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상정되는 ‘모델 작가 Autore Modello’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텍스트의 해석자 주체인 ‘경험적 독자’와 ‘모델 독자 Lettore Modello’의 구별에 상응한다. ‘모델 독자’와 ‘모델 작가’는 모두 텍스트의 고유 전략으로서 형성되는 추상적 존재이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김운찬, 1998 참조.

하고 또한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지옥편」 제5곡)를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연민의 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히 등장인물 단테이다. 이것은 작가 단테의 감성과는 무관한 하나의 텍스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멸 어린 탄식(「연옥편」 제6곡)에서는 등장인물 단테 이외에, 경험적 작가 단테, 그리고 피렌체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했던 실존 인물 단테의 모습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발화의 주체를 확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은 발화 행위의 주체와 발화체의 주체 사이의 도식적인 이분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렇듯 발화의 주체를 둘러싼 문제점은 특히 구체적인 텍스트의 분석에 있어 자칫하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장 커다란 논쟁점은 텍스트와 텍스트 외적 정보들 사이의 관계로 집중된다. 종종 텍스트 외적 정보들은 최소한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라캉의 지적대로 말하는 주체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있다면, 또는 에코가 말하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도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면,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화의 경험적 주체로서 작가가 그렇게 의도하였든 또는 아니든, 텍스트는 고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가령 나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단어를 발음하면 내가 말한 것을 실제로 말한 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Eco, 1979: 179).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단테와 『신곡』의 작가로서의 단테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된 텍스트로서의 『신곡』에서 형성되는(또는 해석되는) 작가는 ‘경험적 작가’ 단테와 다를 수도 있다. 『신곡』이 고유의 텍스트 전략으로서 제시하는 유일한 모습은 바로 에코가 말하는 ‘모델 작가’일 뿐이다. 텍스트 외적인 자료들, 가령 그의 다른 작품들이나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에서 드러나는 그의 정치

적 편력·사상·믿음 등의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을 토대로 단테가 실제로 의도했던 바를 짐작하고 유추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것은 텍스트 자체의 풍부한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종종 “경험적 독자는 발화의 주체인 경험적 작가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그를 단조롭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ibid., 62). 바꾸어 말하자면 텍스트는 발화의 주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율적인 의미의 공간을 펼칠 수도 있다.

3. 기호로서의 주체

에코가 말하는 모델 작가는 텍스트의 전략으로서, 그리고 ‘해석적 가설’로서 설정된다. 그는 발화 주체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도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다. 텍스트가 경험적 발화 주체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한다면 모델 작가의 존재는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적 독자들이 텍스트의 전략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 발화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경험적 작가와는 엄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도식적으로 보자면 에코가 말하는 모델 작가와 모델 독자 개념은 발화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유령 같은 주체, 즉 발화자(enunciatore)와 피발화자(enunciatario)에 해당한다. 만약 경험적 주체를 배제할 경우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발화자의 ‘환영(幻影)’⁵⁾에 불과하다.

5) 이탈리아어의 simulacro를 이렇게 옮겼다. 하태완은 J.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Éditions Galilée, 1981)의 우리말 번역판(『시뮬라시옹』, 민음사, 1992)에서,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말로 “가장(假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근사할 것이라고 말한다(ivi., p. 9). 이 대상이 실존하지는 않지만 기호들을 통해 형성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므로 텍스트의 환영으로서 설정되는 발화자와 피발화자 역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이다. 이 발화자는 텍스트의 결과로서 구성된다. 그렇다면 기호들의 삶의 과정에서 그 생산자 주체는 고유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주체성은 오로지 발화체 안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서만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앞서 인용한 예코의 기호학적 주체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최소한 『논고』에서 제시된 코드 이론과 기호 생산 이론을 토대로 한 일반 기호학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발화체에 의해 “운반된 내용의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읽혀지거나 해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호학은 “오로지 기호학적인 범주들을 통해서만 세미오시스의 주체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이다(1975: 377). 기호학에서의 주체는 기호들을 생산하고,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로서, 바꾸어 말해 “오로지 기호 기능들을 통해 발현되는 주체”로만 인식되어야 한다(*ibid.*, 378~7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호학의 주체는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체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예코의 기호학적 주체 개념은 퍼스에 의한 논리학적 기호학의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 퍼스에게 있어서 인간 주체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주체이다. 자신의 모든 인식으로 구성되는 인간은 바로 그의 생각 자체인데, 그 생각은 오로지 기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호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Proni, 1990: 97). 인간의 “모든 생각은 기호들을 통해 전개되는 추론 과정”이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추론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기호에 불과하다”(*ibid.*, 90, 116). 예코가 인용하는 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나 다른 외부적 상징들을 통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유령’ 또는 ‘그림자’에 가까운 ‘환영(幻影)’으로 옮겨보았다.

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는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할 수 없다. 그것도 오로지 네가 네 생각의 해석소 interpretant로서 단어들에 의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다.” 그러므로 실제로 인간과 언어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 모든 인간 정보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언어 정보의 증가를 수반하고, 또한 그에 의해 수반된다. [……] 바로 인간이 사용하는 기호나 언어는 바로 그 인간 자체 ‘이다.’ 모든 생각은 하나의 기호라는 사실은, 삶은 생각들의 사슬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간은 바로 기호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모든 생각은 하나의 ‘외부적’ 기호라는 사실은, 인간은 하나의 외부적 기호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것은, homo라는 낱말과 man이라는 낱말은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인간과 외부적 기호는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는 나 자신의 전반적인 총체이다. 바로 인간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5. 313~14)⁶⁾

퍼스의 냉정하고도 현실주의적인(또는 실재론적인) 논리학에 따르자면 주체는 기호들로 환원된다. 인간은 기호들의 체계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기호들에 의해 얽매이게 되는 셈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라캉 역시 주체와 기호 사이의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발화 주체의 의도와 발화체의 의미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차이들로 인해, 의미화 과정은 오히려 주체의 위치를 기호의 체계 안에 지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호들로 환원된 주체의 이미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텍스트의 환영으로 나타나는 주체의 모습을 뚜렷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추상적인 유령 주체의 모습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6) Ch. S. Peirce, *Collected Papers*, Cambridge(MA), Havard Univ. Press, 1931~1958, vol. V, pp. 188~89.

그의 텍스트를 수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심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주체와는 달리 그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원칙상 텍스트의 해석은 열려 있다면(에코의 주장대로 비록 무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상이한 주체로서 형성되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론도 텍스트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으며, 발레리의 주장대로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없다”⁷⁾는 숙명적인 이유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원래 기호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1975: 17)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피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텍스트는 경험적 발화 주체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그것이 수용되는 공간에 따라 상이한 모습의 주체들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에코는 19세기 프랑스의 신문 연재 소설 작가 으젠 쉬 Eugène Sue에 대한 분석(1979)에서 재미 있는 사례를 든다. 그 당시 독자 대중의 해석은 작가의 원래 의도를 압도하고, 작가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도록 만든다. 그것은 단지 서사의 흐름만 바꾼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댄디 dandy적 취향에서 시작한 작가 자신이 종국에는 열렬한 사회주의자로 정치적 전향까지 감행하기에 이른다. 바로 해석에 의해 탄생한 유명 주체가 오히려 실제의 주체를 압도한 전형적인 경우이다.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텍스트는 그렇게 말하고 또 독자들에게 의해 그런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TV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대중 매체들이 소비자 대중의 취향과 인기에 의존하고 때로는 거기에 영합하는 경향도 이러한 해석의 메커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서 비롯된다.

7) Eco, 1979: 58에서 재인용.

4. 해석과 주체

이처럼 기호로서의 주체는 전적으로 수신자들의 해석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는 무한하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해석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면, 그리하여 무수하게 다른 모습의 주체들이 형성된다면, 비록 텍스트의 환영으로 탄생하였지만 발화자 주체의 진정한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그는 아무런 정체성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에코는 '과잉 해석'이나 '미달 해석'을 배제하고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텍스트의 의도를 존중함으로써 독자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횡포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다.

물론 에코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모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데리다를 비롯한 '해체론적' 읽기의 옹호자들은 해석에 가드레일 guardrail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한 로티 R. Rorty 같은 극단적 실용주의자는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Eco, 1992: tr. it. 114)는 입장에서 모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들까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욕구에 맞도록 굴복시키려는 편집증적 욕구" (ibid., 116)의 소산으로 독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텍스트를 마음대로 잘라내어 전혀 엉뚱한 곳에 갖다 붙여도 좋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해석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도를 동시에 무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에코의 노력은 지나치게 독자의 입장에 편중하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경험적 발화 주체(비록 '모델 작가'라는 유령의 모습으로 바뀌지만)의 의도와 텍스트 전략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도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읽기, 일종의 "텍스트

에 대한 폭력”(Eco, 1979: 1992)을 방지함으로써,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작가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호들에 의해 형성된 기호학의 주체가 바로 그 기호들의 해석에 의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이론 전개의 단절 또는 불일치에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열린 작품』(1962)에서 제시되었던 ‘열림’의 시학이 『해석의 한계』에 의해 부정되고 있지 않으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것은 에코의 이론에 대한 단순화된 읽기와 물이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열림’의 주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수신자에 의한 ‘모든’ 자의적 해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에코는 『열린 작품』의 핵심 주제는 전통과 혁신, ‘열림’과 ‘닫힘’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 관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⁸⁾ 파브리 역시 이 제목은 『부채의 구조』(1968)와 마찬가지로 에코가 좋아하는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일종의 “모순 어법 oxymoro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Fabbri, 1992: 177~78).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은 에코의 소설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강조되어 있다. 기호학의 순수 이론만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소설화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에 걸맞게 그의 소설들은 무엇보다도 기호들의 체계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은유적 설명처럼 보인다. 해석의 문제와 관련해 보면 첫 소설 『장미의 이름』(1980)이 ‘미달 해석’에 따른 음울한 묵시론적 살인 사건을 다루었다면, 『푸코의 진자』(1988)는 ‘과잉 해석’에 따른 광신적인 믿음과 행동이 빚어내는 사건을 소설화하고 있다. 뒤이어 나온 작품들은 직접적으로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인간과 기호들의 삶이 불가분

8) 에코는 ‘열림’의 개념이 다소 직관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평론집의 제목은 에코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출판을 맡은 Bompiani에 의해 거의 우연하게 정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중에 술회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에코는 “열림의 구조 또는 형식을 정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텍스트 전략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한 도구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1979: 5).

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전날의 섬』(1994)은 홀로 남은 난파선의 조난자가 타자의 결핍 상태에서 글쓰기, 곧 기호들의 생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최근에 나온 『바우돌리노 Baudolino』(2000)는 회대의 거짓말쟁이 또는 상상력 풍부한 모험가가 엮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와 허구, 현실과 환상이 모두 기호들을 통해서만 재구성됨으로써 서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에코의 이론이 해석의 주체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들의 사회 생활 속에서 “기호들의 삶”은 생산과 유통·소비의 순환 고리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퍼스의 말대로 “인간과 언어[기호]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그 순환 과정 속에서도이다. 인간은 기호 생산 작업을 통해 고유의 주체성을 실현하고, 동시에 기호들의 소비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에코는 비록 방법론적인 전제로서 기호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호 체계들의 작동 과정에 있어 심리적 주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호학적 “주체”의 ‘뒤에, 앞에, 나중에, 그 너머에 또는 이쪽 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1975: 379). 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기호학적으로 다룰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논고』에서는 이 중요한 인간 주체의 창조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다. 제2장 ‘코드 이론’에서 기호들의 체계와 의미들의 우주에 대해 논의한 다음, 에코는 제3장 ‘기호 생산 이론’에서 그 체계의 사용자 주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개의 인간이 기호들을 생산하는 행위는 고유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세미오시스적 창조의 실현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별 주체의 창조 행위를 가리켜 에코는 ‘발명 invenzione’이라 부른다. 발명이란 “기호 기능의 생산자가 목적에 알맞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적 연속체 continuum를 선택하고, 거기에다 형식을 부여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여 그 안에다 내용

의 유형에 적절한 요소들을 전환trasformare하고자 하는 생산 방법”(ibid., 309)이다.

이렇게 발명된 표현은 수신자에 의해 수용될 경우 개인에 의한 창조의 차원에서 사회적 코드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명이 새로운 “코드의 설립”으로 이어진다(ibid., 315~20). 만약 수신자가 “협력을 거부”하면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발명의 전형적인 예로는 바로 미학적 텍스트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주체 역시 어디까지나 기호들의 체계, 즉 코드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의 유일한 보장은 여전히 코드 이론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ibid., 378). 그렇다면 심리적 주체의 존재는 여전히 한쪽으로 밀려나 있다.

심리적 주체가 발화체의 주체에 의해 압도당하고 밀려난다는 관념은 언뜻 보기에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적인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기호학적 담론 안에 발화의 주체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라캉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언어학의 범주들을 정신 분석에 도입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실버만 K. Silverman은 “‘주체’와 ‘의미화’라는 용어는 모든 점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따라서 심리 분석은 기호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983: 194). 이것은 소쉬르의 입장, 즉 기호학을 사회 심리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어쨌든 혹시라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코 기호학의 경계선들 너머의 현상들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과 과학적인 분석 도구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심리적 현상들까지 ‘기호학적으로’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최근에 들어 많은 기호학 연구들이 예코가 『논고』에서 설정한 여러 경계선들 너머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간 주체의 모든 요소들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레마스의 후기 작업들이 소위 ‘열정’⁹⁾의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방향을 열어준 것도 이러한 주체의 문제를 기호학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페치니(Pezzini, 1998)는 에코의 해석 이론도 이러한 ‘열정’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페치니의 분석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열정을 의미하지만, 어쨌든 에코의 이론이 기호의 사용자 주체(비록 수신자 주체로 제한되어 있지만)에 대한 성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에코의 기호학 이론이 갖는 한계는 차라리 지나친 논리적 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에코의 초기 연구가 중세 철학과 미학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그의 이론이 주요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퍼스의 기호학 이론이 원래 논리학의 한 방법론으로서 탄생하였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의 지나치게 철학화된 기호학에 대한 파브리의 지적(1997: 91~95)은 의미화의 주체가 냉정한 논리적 주체로 환원되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냉정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그의 해석 이론에는 ‘열정’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ibid.*, 107).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술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주체의 모습을 포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들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에코가 제시한 경계선들을 넘어서 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과 함께 새로운 기호학의 전망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에코의 이론을 ‘열린’ 방식으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의 기호학은 단지 이론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의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여러 글들은 흥미롭고도 날카로운 실마리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논고』에서 제시된 기호학적 주체를

9) 여기에서 ‘열정 passione’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감정들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서 “‘정서’ ‘감정’ ‘애정’ 등에 대한 상위 이름 iperonimo”로(Pezzini, 1994: 149) 간주해야 한다. 그레마스가 분석한 열정의 구체적인 경우들로는 “분노” “향수” 그리고 Fontanille와 공동으로 작업한 “탐욕”과 “질투”(Greimas, Fontanille, 1991) 등이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열어놓은 가능성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과정에서 파브리가 말하는 진정한 “기호학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운찬(1998), 「해석의 지평: 움베르토 에코의 텍스트 기호학」, 『이어이문학』 제4집, 한국이어이문학회, pp. 31~70.
- (1999), 「에코의 ‘백과사전’ 개념 연구」, 『언어와 기호』, 기호학 연구 제6집, 한국기호학회, pp. 33~55.
- Benveniste, Émile(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Paris, Gallimard(황경자 옮김, 『일반 언어학의 제 문제 I』, 민음사, 1992).
- Eco, Umberto(1962), *Opera aperta*, Milano, Bompiani.
- (1968), *La struttura assente*, Milano, Bompiani.
- (1975),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Milano, Bompiani.
- (1978), *Il superuomo di massa*, Milano, Bompiani.
- (1979), *Lector in fabula*, Milano, Bompiani.
- (1990), *I limiti dell'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 (1992),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Stefan Collini(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tr. it. *Interpretazione e sovra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1995).
- (1994), *Sei passeggiate nei boschi narrativi*, Milano, Bompiani.
- (1997), *Kant e l'ornitorinco*, Milano, Bompiani.
- Fabbri, Paolo(1992), “L'idioma estetico. Il dedalo nel testo,” Manetti et al.(ed.), *Semiotica: Storia, teoria, 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 (1998), *La svolta semiotica*, Bari, Laterza.
- Greimas, Algirdas Julien(1970), *Du sens*, Paris, Seuil(tr. it. *Del senso*, Milano, Bompiani, 1974).
- (1983), *Du sens II—Essais sémiotiques*, Paris, Seuil(tr. it. *Del senso 2, Narrativa, Modalità, Passioni*, Milano, Bompiani, 1984).
- Greimas, Algirdas J., Courtés, Joseph(1979),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tr. it. *Semiotica. Dizionario ragionato della teoria del linguaggio*, Firenze, Casa Usher, 1983).
- Greimas, Algirdas J., Fontanille, Jacques(1991),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tr. it. *Semiotica delle passioni*, Milano, Bompiani, 1996).
- Pezzini, Isabella(1994), "Passione," Lucia Corrain(ed.), *Il lessico della semiotica(controversie)*, Bologna, Esculapio, pp. 147~70.
- (1998), *Le passioni del lettore*, Milano, Bompiani.
- Proni, Giampaolo(1990), *Introduzione a Peirce*, Milano, Bompiani.
- Silverman, Kaja(1983), *The Subject of Semiotics*, Oxford, Oxford Univ. Press.

Il soggetto semiotico di U. Eco

Kim Woon-chan

Sembra che Eco non si tenga molto del problema del soggetto semiotico nel suo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trattandolo solo in poche pagine del quarto capitolo. Così sembra rispetto agli altri autori, considerati semiotici per vari aspetti delle loro teorie, che mettono al centro delle considerazioni il soggetto umano che usano a suo modo i diversi sistemi semiotici nella vita quotidiana. Ma le osservazioni di Eco rappresentano il dilemma caratteristico riguardante il problema nell'ambito della semiotica, che per la sua scientificità non può non considerare il soggetto umano solo "come *uno degli elementi del contenuto veicolato*." Citando Peirce sostiene che la semiotica, almeno per il presente stadio della disciplina, "ha il diritto di riconoscere questi soggetti *solo in quanto essi manifestano mediante funzioni segniche*, producendole, criticandole, ristrutturandole." Queste affermazioni sembrano una netta contrapposizione a quelle di altri studiosi come Lacan, Kristeva, o Benveniste. Ma se proviamo a considerare più in fondo le loro posizioni, sarebbe possibile trovare delle convergenze

fondamentali con le teorie semiotiche di Eco.

Il problema del soggetto semiotico consisterebbe nella presunta differenza tra il significato del suo enunciato e l'intenzione che egli avrebbe voluto metterci nell'atto di enunciazione. E la maggiore difficoltà nasce dal fatto che nessuna semantica può determinare definitivamente il significato di un enunciato. Proprio per questo la psicologia di Lacan può sottolineare lo "slittamento" continuo del senso. Per Eco l'intenzione non codificata o convenzionalizzata non può essere trattata semioticamente nella sua teoria del codice. I limiti alquanto rigidi che egli impone nel considerare il soggetto semiotico rappresentano una scelta inevitabile per rendere più sistematica e oggettiva la sua semiotica.

Non è che Eco trascura l'importanza del soggetto semiotico, anzi spera che il problema venga risolto in futuro dalla semiotica oltrepassando anche le "soglie" imposte all'inizio del *Trattato*. Ma è vero che nel rapporto dialettico di tensione tra il codice e il soggetto umano, quest'ultimo dev'essere letto o "interpretato" sempre in base al primo, anche per riconoscere una eventuale deviazione consapevole o no. Inoltre la posizione di Eco è in stretta connessione con la sua "semiotica interpretativa," che cerca di stabilire un *guard-rail* nella marea della infinita deriva decostruttiva derridiana. Anche qui entra in gioco introdurre qualche criterio di giudizio nell'interpretare un testo. Sarebbe dunque importante non irrigidire le sue idee sul soggetto semiotico, e prenderle nella prospettiva dello sviluppo della semiotica.

열쇠어 : 주체, 발화, 발화체, 세미오시스, 해석, 의미, 의도.